

쇼린지 절

쇼린지 절은 황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유력 씨족 후지와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712년에 창건된 절로 현재는 진연중에 속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여러 차례 화재를 겪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모두 18세기에 재건된 것입니다. 쇼린지 절에는 수많은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세기에 만들어진 십일면관음상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쇼린지 절은 일본 초기 문학에서 자주 칭송되는 오구라야마 산에 위치해 있어서 쇼린지 절의 경내에서는 일본 문명과 불교의 발상지인 야마토 지방(현재의 나라현)의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길고 좁다란 형태의 나무가 무성한 언덕은 3세기에 일본 최초 왕조의 군주였던 여왕 히미코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하시하카고분입니다. 그 동쪽으로 보이는 미와야마 산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인 오미와 신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